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평교배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사도 10,34-37-43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24)



(후렴)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제2독서 | 콜로 3,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 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0,1-9

영성체송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 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가 | 입당 130 예물준비 129(136)
영성체 165(163) 파견 'Hallelujah'(성가대)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파견>



✚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4월 5일	장혜윤	이태주	장민우	장민우	유정옥 진서윤 이기원	한서희 최예준 김수현 이예진 허우현 김민서
4월 12일	정유진	민완준	이경자	이경자	김중선 백이백 이정현	조혜원 여동건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성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6년 상반기 영성특강 일정

5/17(주일) 특강 (11:00AM-12:30PM)	Fr. 이용호 프란치스코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	-----------------------------------

부활절 봄맞이 도서 · 성물 Sale

도서부에서 부활절 봄맞이 세일을 합니다. 영성생활에 도움 되는 도서와 성물들을 할인 판매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현금 거래만 가능합니다.)

2026년 주일학교 신앙캠프

주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

일시/ 장소: 5월 2일~3일 (1박2일), Autocamp Catskill

대상: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들과 가족들

참가비: \$50 per child, \$100 per adult

접수마감: 3월 31일까지

문의: 858-345-0307 (교육분과장 최병은 루치아)

2026년 어린이 첫영성체반

대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초2학년 이상의 초등학생 (접수 시 주일학교 등록 필수)

교리 일정: 4/12, 4/19, 5/10, 5/31(담당: Fr. 루카 OFM)

시간/장소: 11:30AM-12:30PM, 오피스동 3층 컨퍼런스룸

첫영성체: 6월 7일(주일) 성체성혈대축일 미사 중

신청: 917-514-0488 (학부모회 회장 김혜미 레오나)

2026년 제41차 여성 꾸르실로 피정

날짜: 2026년 4월 16일(목)-19일(일), 3박 4일

장소: 뉴튼 수도원(St. Paul's Abbey)

주관: 미동북부 한인 꾸르실로 사무국

문의: 347-707-0305(간사 윤복흥 요한)

2026년 제82차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일시: 2026년 5월 15일 오후 7시 - 17일 오후 5시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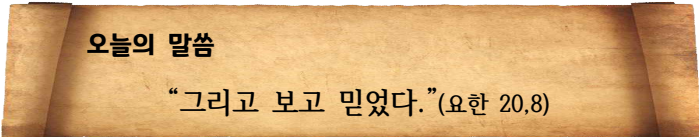
289 US 206. Newton, NJ 07860

문의 및 신청: 646-322-3484

장철순 스테파노 & 장혜윤 크리스티나

Chriskim04@gmail.com

Cheolsoo@gmail.com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 정명화 스테파노,
- 김춘운	장석은 요셉
- 이창식 베드로,	- 김철영 미카엘
이흥근 안드레아 영혼	- 권의숙
- 노재준 요한,	
안을선 모니카	
생미사 지향	
- 유기호 베네딕토, 진문자 스콜라스티카의 건강	
- 성령기도회원들의 영육 건강	
- 김영희 클라라 빠른 쾌유	
- 송금옥 헬레나 가족	
- 이경화 크리스토퍼 세례 축하	
- 이지훈 아녜스 생일 축하	
- 노채린 베로니카 견진 축하	
- 이에진 유스티나 견진 축하	
- 김신옥 잼마 영명 축일	
- 이민재 에스델 영육 간의 건강	
- 제임스 정 가족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 이정희 마리아와 박신영 안나 가족의 영육 건강	
- 선영주 엘리사벳	
- 김지원 둘나, 김홍섭 루크	
- 이진우 다니엘 영육 간의 건강	
- 이지훈 아녜스의 생일 축하	
- 이로잔 캐더린, 이흥규 요한 건강을 위해	
- 이로진 요한 가족(사라, 희진, 진우) 건강	
- 유아영 헬렌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	
- 김도영 멜라니아 세례 축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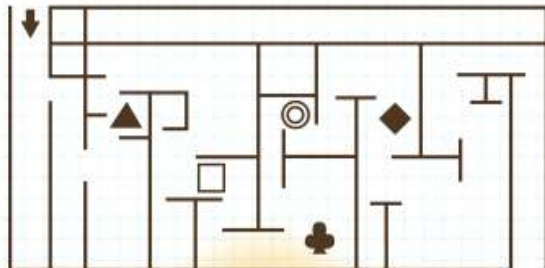
주보 기부

교리플러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셨지만 사흘만에 부활하셨지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잊지 말아요.

"라뿌니~"

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 20,11-18)
 아래의 미로를 통과하면서 얻은 암호들을 보기에서 찾아 풀어보세요.



▲ 바 □ τ ♣ ♣ ♣ ○ 나 ◆ 리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침묵, 부활을 개키다

김남균 시본 신부 | 문화홍보국장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유도 없이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가고 싶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겁니다. 아직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무덤 안에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무덤 안을 봅니다. 수건이 따로, 아마포가 따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전합니다. 그냥 텅 빈 게 아니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훔쳐 갔다면 저렇게 두고 가지 않습니다. 급하게 도망쳤다면 더더욱요. 서두르는 사람은 개켜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설명되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아무 미련 없이 떠난 것처럼. 그 정돈된 침묵 앞에서, 다른 제자는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빈 자리를 보고, 그냥 믿은 겁니다. 어떤 믿음은 그렇게 옵니다. 증거가 아니라, 고요함으로. 이 장면은 우리 삶과 많이 닮았습니다. 부활은 화려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팡파르를 불지도, 하늘이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오래 앓던 분이 어느 날 조용히 평화로워지거나,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던 관계가 어느 틈에 조금씩 나아지거나, 포기했던 일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거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조용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 조용한 자리가 바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내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이미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야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부활은 그렇게 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막혀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사실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은 아직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빈 무덤이 있을 겁니다. 오래 닫혀 있던 마음의 어느 구석,

이미 끝났다고 여겼던 어떤 희망,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관계. 그 자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어두울 때, 이미 일어난 일처럼.



그림 에세이

부활초 | ‘침묵’의 이름이던 촛불이 ‘기쁨’의 또 다른 이름 되어 어둠을 밀어냅니다. “용약하라.”라고 시작하는 ‘파스카 찬송’은 천사들마저 조아리게 하는 가슴 벅찬 사랑으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심지 돋운 촛불을 안고서 고개 돌려 평화의 인사를 건네면, 너도 나도 빛에 물든 얼굴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는지, 차마 다 알지 못할 당신의 사랑이 건너건너 온 땅으로 변져 갑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06호, 2026년 4월 5일(가혜)